

War Room V.

능력없는 기도의 원인 (거룩함의 회복)

1. 꿈 이야기

[디모데후서 3:5]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성도의 능력은 '경건의 모양'이 아니다. 디모데후서 3:5절의 말씀을 보라. 경건은 모양이 아니라, 경건은 능력이라 정의하고 있다.

* 모양은 무엇인가? (모름호시스 - 유행, 외모)

유행은 흐름을 말한다. 세상의 흐름, 즉 겉모습에 민감한 자들이다. 언제나 남의 시선이 중요하다. 내면의 상태보다는 겉모습에 치중한다.

* 능력은 무엇인가? (뒤나미스)

사도행전 1:8절 성령의 '권능'과 같은 단어이다. 강력한 능력을 말한다. 할 수 있게 하고, 가능한 능력을 말한다.

'경건은 모양이 아니라 능력이다' 라고 정의한 말씀에 따르면, 성도의 신앙에 능력이 없는 이유, 즉 기도에 능력이 없는 이유가 기도의 모양만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속이 빈 껍데기만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라 말한다. 외식은 속이는 것이다. 그런척하는 것이다. 능력이 없는데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사하는 것이다. 정직하게 질문해야 한다. 나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는가? 나의 신앙에는 능력이 있는가? 오늘 말씀을 보라. 능력 있는 기도는 '경건'으로부터 온다.

[마가복음 9:28-29]

28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9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14절 이후를 보면 귀신 들림으로 말 못하는 아이가 나온다. 아버지는 귀신들린 아이의 치유를 위해 제자들 에게 데려간다. 그러나 제자들은 귀신을 쫓는데 실패한다.

18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19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예수님은 믿음 없는 세대를 책망하신다. (19절) 그리고 성도들의 믿음 안에 있는 능력을 말씀하신다.

[마가복음 9:23]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나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능력은 '뒤나미스'이다.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경건'이 능력이라는 말씀을 다시 상기해야 한다.

2. 거룩함을 회복해야 하는 이유

마지막 때 거룩함을 회복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세상의 악함이 강력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진리가 아니라 '이론'을 따른다. 진리가 없으니 혼돈이 가득하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과 생각이 문화가 되어 버렸다. 문화의 힘은 무엇인가? 문화는 삶이다. 고착화된 상태를 넘어 영향력이 생겨난 것이 문화이다. 문화는 대세를 말한다. 대세를 거스르는 것은 반역이다. 외톨이가 된다. 대세의 흐름을 역행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대세가 주는 엄청난 영향력을 거절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마지막 때의 현상이다. 노아의 때와 같다.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임을 기억하라 말한다. 노아처럼 세상의 문화에 역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보같은 방주를 산 위에 만들 수 있겠느냐? 라는 질문이다.

거룩함의 회복은 수도사들의 깊은 영성이 아니다. 마지막 때 반드시 회복되어야 한다. 오늘 내 기도능력이 없어지는 이유는 명확하다. 악한 세대를 이길 거룩함이 없기 때문이다.

3. 온전함

[데살로니가전서 5:23]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오늘 말씀을 보라. 마지막 때 주님이 강림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하게 보전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다.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영, 혼, 육이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 분리된 것이 아니다. 다 소중하다는 것이다. 영, 혼, 육의 기능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말한다.

Now may the God of peace Himself sanctify you entirely; and may your spirit and soul and body be preserved complete, without blame at the coming of our Lord Jesus Christ.

데살로니가전서 5:23절 바울의 기도는, 왜 우리가 지금까지 영혼육의 사람에 대하여 공부했는지의 출발점이다. 온전한 사람을 향한 가장 최고의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영, 혼, 몸을 흠 없게 보전하기를 원하신다. 놀라운 말씀이다. 신앙의 목적이며, 삶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말씀이다.

‘온전히 거룩하다’ - God of peace Himself sanctify you entirely

‘흠 없게 보존’ - may your spirit and soul and body be preserved complete,

온전하고 완전하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목적을 알아야 한다. ‘부족하고 결핍되게, 불완전하게’가 아니라 ‘온전하고 완전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열망을 알아야 한다. 영어로 보면 ‘sanctify’ 라는 단어가 사용된다. ‘성화’이다. 성화의 개념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 영혼육이 원형으로 회복되어, 다시 원래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 * 영 -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연합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과 연합할 때 가능하다)
- * 혼 - 지속적으로 영에 순복하는 단계가 되어야 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일 (자기를 부인하는 일을 통해 가능하다)
- * 몸 -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 성전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4. 거룩함을 향한 갈망

거룩함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행위로부터 오지 않는다. 신앙의 가장 핵심적 원리는 ‘출처’이다. 거룩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요한계시록 4:8] 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요한계시록 4장은 하늘의 예배를 소개한다. 이것은 거룩한 옷을 입은 백성들이 영원토록 해야 할 예배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 예배의 주제는 오직 하나 ‘거룩함’이다.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한 네 생물들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외친다. 얼마나 놀라운 장면인가? 거룩함은 모양이 아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본질이다.

한 마디로 말하면 ‘놀랍다. 경이롭다’이다. 너무나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아름다우신 모습이 거룩함이다.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예배’가 멈춘 적이 없다. ‘거룩함을 향한 갈망’이 일어나야 한다. 하나님을 더 알고, 사랑하고 싶다는 오직 한 갈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마지막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거룩한 흰옷 입은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 거룩함을 향한 갈망으로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임재로 함께 하신다. 그것이 바로 능력의 근원이 된다. 마지막 때는 예배의 싸움이다.

마지막 때의 예배는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가 아니다. 임재가 있는 예배, 임재가 없는 예배로 나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 신앙 안에 거룩함이 회복되어야 한다. 거룩함은 거룩한 분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시작됨을 명심하자.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 다른 이유가 없다. 주님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 거룩이며, 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하고 싶다는 갈망이 거룩함이다.